‘망막박리’로 실명 위기…“화가 꿈 잃고 싶지 않아요”

생명나눔으로 함께 사는 세상

5. 이달의 환자–망막박리 앓는 여고생 예지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지난 5월, 망막박리로 수술받을 당시 모습. 현재 월 1회 검진과 치료를 받고 있다.

미술 전공하는 17세 예지…지난 5월 수술 후 지속 검진 해야
매달 1회 전남서 서울로 검진…힘든 가정형편에 의료비 부담

여고생 예지(17세, 가명)의 무릎은 온통 멍으로 가득하다. 눈을 가린 보호대로 인해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 움직일 때마다 자주 부딪치고 넘어져 생긴 상처다.

딸의 멍든 무릎을 볼 때마다 엄마는 가슴이 매어진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딸이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는 모습을 볼 때면 감정이 북받쳐 올라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 행여나 딸이 엄마의 눈물을 눈치를 챌까 싶어 마음을 추스르려 하지만 한번 흐른 눈물은 멈출지 모르고 흘러내린다.

예지는 지난 5월, 망막박리로 수술을 받았다. 망막박리는 망막이 안구 내벽으로 떨어져 들떠 있는 상태로, 시야에 장애가 생기는 병이다. 박리가 망막 중심부까지 진행되면 망막에 영양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다양한 시력 장애를 일으키고 최악의 경우 안구가 위축되며 실명하게 된다. 수술 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가 필수다.

예지 역시 수술 직후에는 주 1회 병원을 방문해야 했지만 현재는 점차 그 빈도를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최소 한 월 1회 검진과 그에 따른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검진을 갈 때마다 최소 15만 원 이상씩 지출되는 본인 부담금이 큰 것이 문제다. 특히 예지는 현재 전남에 거주하면서 서울의 한 종합병원으로 매달 검진을 다니고 있다. 안압을 피해야 하는 상황에서 눈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기에 매번 보호자와 지인이 동행해야 한다. 그렇기에 교통비 지출 역시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예지의 아버지는 이웃집 농사일을 돕는 단기 근로를 하고 있어 수입이 일정치 않다. 어머니는 결혼이민자로, 2005년 한국에 왔다. 한국말이 원활하지 않아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했고,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세 가족 생계유지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다.

때문에 어려운 가정형편으로는 예지가 진료를 계속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 다행히 최근 생명나눔실천본부가 매달 실시하고 있는 환자 치료비 전달로 소정의 의료비를 지원받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검진은 예지의 가정에 걱정만을 남기고 있다.

예진이는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본인이 좋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꿈을 키워나간 성실한 학생이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미술에 뛰어난 재능을 보인 예지는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미술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재주를 살려 예술고등학교에 진행했다. 그러나 진학과 함께 발병한 망막박리로 마음껏 그림을 그려보지 못했다. 시력이 점점 나빠지며 안경조차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재능을 펼치지 못한 예지는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된 상태다.

예지의 부모님은 그동안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 예지의 꿈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지 못한 것이 항상 미안하다. 이런 상황에서 예지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할 수도 있는 질병까지 얻게 되자 모든 것이 본인들의 탓인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예지가 진료를 잘 받고 시력을 회복해 예전처럼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고 그토록 원하는 화가의 꿈을 이뤄내길 기도할 뿐이다.

예지는 앞으로 최소 1년 검진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치료비만 100여만 원 이상 예상된다. 예지가 시련을 딛고 화가의 꿈을 이뤄낼 수 있도록 불자들의 자비온정이 절실하다.

안구 치료 계좌 농협 301-0138-0683-51 생명나눔실천본부 02)734-8050

일면 대종사의 생명나눔 편지



환자 치료비 후원으로 동체대비 사상 실천

슬픔 나누는 건 공덕 쌓는 일
아름다운 인연 맺어가는 계기
치료비 지원, 사람 생명 살려

불볕더위와 함께 이어진 장마가 숨을 턱턱 막히게 할 정도로 위력적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처럼 기세등등한 여름을 즐기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계절의 변화처럼 빠르게 스쳐 가는 것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 관계를 맺는 인연이 아닐까요?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계율이 담긴 ‘범망경’에서는 ‘옷깃 한 번 스치는 것도 500겁의 인연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엄청난 인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귀한 인연을 외면하고 연을 끊는 일을 심심치 않게 저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어렵게 만난 귀한 인연이라고 생각하면 차갑게 뒤돌아서는 일은 없을 텐데 말이죠.

부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인연을 짓는 네 가지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즐거움을 베푸는 마음입니다. 나의 기쁨을 이웃에게 베풀어 주는 친구와 같은 친절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동정하는 마음입니다. 이웃의 불행을 보고 같이 슬퍼하고 측은해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남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공감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은 평등한 마음입니다. 편견과 차별심을 없애고 모두를 사심 없이 공평하게 대하는 마음입니다.

네 가지 마음을 닦으며 착한 벗과 가까이하고 좋은 인연을 많이 지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인연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를 통해 통해 좋은 인연을 맺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육체적 고통으로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아파하고 있는 누군가의 슬픔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최고의 공덕이요, 아름다운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비란 상대방의 슬픔을 더불어 슬퍼하고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뜻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를 위해 작은 정성을 보태어주는 것은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동체대비 사상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뿐 아니라 남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나 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온 우주 만물의 기운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생명은 귀하게 받는 것입니다. 나를 아끼듯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나눔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나눔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약속이 희망이 되고, 당신의 나눔이 기적이 됩니다.

치료비 지원으로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디딤돌이 되어 주세요.

환자 치료비 지원 참여방법
문의 : 02)734-8050
ARS후원 : 060-703-1133 (한 통화 5000원)
홈페이지 : www.lisa.or.kr
▶ 정기후원 시 CMS 자동이체 가능.
▶ 후원금은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러분의 따뜻한 정성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이웃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용기를 잃지 않게 손을 잡아 주세요.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매달 발행하는 〈행복한 빈손〉 소식지를 통해
환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고 치료비를 모금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기후원 신청 02-734-8059
간편한 ARS 060-703-1133 (한 통화 5000원)
환자치료비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 환자 후원금은 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